MUNHWAJ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September 2021, pp.150~167.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3.150

문화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 개발 방안 연구

안대현 이천양정여자중학교 교사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educu@korea.ac.kr

국 문 초 록

3차 교육과정 이후 중학교 역사교육은 정치사 중심으로 실시되어왔으나 많은 학생들은 역사 과목을 단순 암기 과목으로 인식하며 추상적인 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이 역사교육과정기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에서 문화재 교육 활성화를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과 학생 참여형 역사 수업 구현 등 문화재 교육의 유용성을 밝히고 현행 정치사 중심의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사회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 및 문화재 교육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중학생들은 현행 정치사 중심의 역사를 학습량이 많다고 생각하며 교사들도 이에 대해 동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든 집단에서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사 중심의 역사교육과정에서 문화재 교육을 충분히 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은 문화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역사교육과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성격' 부분에서는 문화재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과 역사 자료에 문화재를 포함할 것, '목표' 부분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할 것과 문화재 학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보존·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추가 기술할 것,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부분에서는 소주제에 문화재 관련 내용을 추가할 것과 성취 기준에 문화재 관련 내용을 좀 더 보강할 것,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에서는 사료 학습에 문화재 학습을 포함할 것과 문화재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안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개발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다면 문화재 교육이 강화되어 보다 생동감 있는 역사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교육, 문화재, 문화재 교육, 교육과정기준 개발

투고일자 2021. 06. 29. ● **심사일자** 2021. 07. 14. ● **게재확정일자** 2021. 08. 03.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Ⅰ. 서론

그동안 한국의 역사교육은 이론적인 면이나 실천적인 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역사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답한 교실 내에서 규격화된 교과서를 가지고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른바 '진도 빼기 수업'에 대한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으며 예비교사 시절 소망하던 다양한 수업 방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 정보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지구촌으로 정의되는 21세기와는 무관한 구태의연한 역사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전영준 2018: 424). 또한 역사교육과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역사 학습의 목적과 교사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 목적이 모두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백은진 2015: 36~38).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오래전부터 주목되어왔으며 교육과정에 반영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문화재청은 2006년 발간한 연구자료를 통해 개정될 역사교육과정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내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문화재청 2006: 181~210). 하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교육과정이 계속 제시되어 문화재 또는 문화사 중심의 교육은 사실상 정규 역사 수업 시간에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역사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과정 문서에 역사교육과정의 계열성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계속 받았다. 그 이유는 3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형식 차이만 있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정치사 중심이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신소연, 2012: 1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에는 중학교는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꼭 알아야 할 주제, 고등학교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경제·사회·문화사 내용을 포함한다고 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교육과정을 차별화하고자 하였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5~6). 그러나 여전히 학교급별 특성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못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상호 연관 지어 이해해야 할 역사 지식을 분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한종 2015: 27). 중학교와 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계열성과 내용 구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형이며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구체적인 학습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재는 중학생들의 발달 단계로 보았을 때 역사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또한 문화재를 조사·탐구하여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상상력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사교육의 핵심 역량들과도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화재 교육의 개념과 의의 및 교육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후 학생, 교사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기준 개발 방안을 2015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다면 중학생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는 우리 역사를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문화재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문화재 교육의 개념과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에게 문화재를 교육하는 것이 역사교육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재 교육과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검토하여 문화재 교육을 강화한 역사교육과정기준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문화재 교육의 개념

문화재청(2000: 20~21)이 발간한 자료에서는 문화재 학습의 측면에서 문화재 교육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대 교육철학자 올리비아 루부르의 정의에 따라 문화재 교육을 정보를 획득하는 차원인 '~라는 것을 안다', 기능을 획득하는 차원인 '~하는 것을 배운다', 학업 또는 연구의 차원인 '~을 이해한다',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연관되는 차원인 '살아가는 것을 배운다'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문화재청(2006: 5~8)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문화재 교육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문화재 교육은 '문화재를 이용한 역사 이해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학생 스스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통하여 깨닫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수업이 문화재에 대한 학습, 문화재를 통한 학습, 문화 행하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선영 등(2001: 147~151)은 역사 수업의 교재로 사진·그림, 박물관 자료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역사적 상상을 자극하고 역사 지식의 기억과 전이를 돕는다고 하였다. 다만 이런 자료를 활용할 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사의 설명과 해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문화재 교육의 개념에 대해 류호철(2016: 128)은 먼저 문화유산이 '인간의 심적 동일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역사의 흐름과 문화적 변화, 그리고 그에 담긴 의미 등을 직접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게 해준다'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화유산이 갖는 교육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향의 교육이 문화재 교육이라고 하였다. 박상혜(2018: 286)는 '후대에 계승·상속될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재 교육은 역사교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전영준(2018: 430~431)은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학습은 문화재에 대한 학습이라기보다는 문화재를 통한 학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문화와 문화재를 수단으로 하여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학습 목표로 제시되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관점은 문화재 자체에 대한 학습보다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내용으로 보인다.

위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개념은 단순히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를 통해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이며, 더 나아가 문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의의

역사교육에 있어 문화재가 갖는 의의에 대해 문화재청(2006: 10~11)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화재청(2000) 연구를 좀 더 보강하여 문화재 교육의 의의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재는 역사 학습 자료 중 가장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그 시대의 역사 단면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 자료가 된다. 둘째, 1차 자료와 관련하여 문화재는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서 탐구 학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문화재를 견학하고 관찰·조사하는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탐구자가 되며, 그 속에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셋째, 1차 자료로서의 문화재는 교과서의 평면적인 내용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생동적인 학습 자료로서 문화재에 포함된 기능을 습득하거나 문화재를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체험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고정된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받는 종래의 학습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의미의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다섯째, 문화재를 학습함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나갈 수 있으며,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고 향토애와 민족애를 기를 수 있다. 나아가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에 기여할 수도 있다.

중등 교사의 문화재 교육을 위해 문화재청(2009: 21)이 발간한 자료에는 문화재 교육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문화재는 1차 자료로 역사 수업에서 탐구 학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둘째, 교과서 내용의 평면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의 문화를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생동적인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셋째, 문화재를 학습함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나가며,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고 향토애와 민족애를 기른다.

위 연구들을 볼 때 역사교육에서의 문화재 교육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이용한 역사 이해 교육이며, 학생 스스로 체험과 활동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배우고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며 문화재를 통해 깨닫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역사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문화재 교육을 하는 것은 역사교육은 물론 문화재 교육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3. 문화재 교육과정 개발 관련 선행연구

국가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있는 각종 기준은 교과서 집필에 연결되고, 이는 다시 수업으로 이어진다(홍후조 2016: 390).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은 향후 교과서 제작은 물론 수업과 평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 교육에서도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김정희(2010: 34~41)는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문화 교육의 목표와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미술과 학습 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미술과 학습 전략으로 '문화유산 계승 학습 전략'과 '문화유산 교류 학습 전략'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전통 미술이 현대적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감상 및 비평하며 문화유산의 의미와 더불어 가치를 발견하는 데 비중을 두는 것이다. 후자는 다양한 문화권의 전통 미술 품들을 비교하며 한국 문화의 특징과 다른 문화의 특징의 관계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기초로 문화유산을 학습자의 관심에 따라 학습자의 일상적인 문화와 관련지어 새롭게 해석하도록 하고 미래 지향적인 작품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과목에서 문화재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사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신유아(2017: 253~254)는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서는 역사 교과서에 문화사나 생활사 관련 내용을 늘리기보다는 박물관이나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직접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학생과 교사의 문화재 교육에 대한 요구는 무엇인지, 또 체험 학습의 구체적인 수업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인과 전공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교육과정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노경민(2020: 60~68)은 현행 문화재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1)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과 흥미 유발을 위한 체험 교육, 답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2)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는 졸업 이후 이론과 현장의 괴리로 인해 새로운 직무 수행이 곤란한 점, (3) 문화유산 관련 실무자에게는 최신 이론과 정책 시행, 실무 분야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장비·시설 작동 요령 습득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인들에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문화재관리 1-3 수준대로 문화유산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문화재 기관에서도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융합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실무자에게는 지속 가

능한 문화재 관련 직무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재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실제 학교와 교사 및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역사교육과 연관지어 문화재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Ⅲ.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의 문제점

본 장에서는 현행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더불어 문화재 교육이 중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역사교육 방법임에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이유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중·고교 학교급의 계열성 미확보

중·고교 역사교육을 계열화하기 위하여 3차 교육과정 기간의 국사 교육과정 초기부터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는 큰 변화 없이 6차 교육과정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방지원 2006: 264).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화사'에 대한 정의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았고, 실제 내용 구성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의미로의 '문화사'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사실 한 시대와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를 서로 배제한 채 역사교육 내용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문화사라는 계열성을 표방하였지만 이것이 실제 교과서나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만큼 계열성이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21세기 이후의 역사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개발하기 이전부터 역사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이는 시간의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곽병선 1992: 1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역사 연구진들은 학년별 교육과정 차등화에 관심을 두고 7차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는 인물사·생활사, 중학교는 정치사, 고등학교는 분류사 체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정치 외에 경제·사회·문화를 모두 배제하였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고등학교에서도 당시 분야사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최상훈 2003: 217~218) 고대에서 근세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따라 네 차례나 반복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신유아 2012: 108). 이에 대한 비판으로 고등학교 국사 교과에서도 생활사 수업을 도입할 것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나(임금섭 2010: 59~61), 실제 교육과정이나 학교 수업에 적극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구진들은 학교급에 따라 중점을 두는 시간적 범위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계열화를 모색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는 기존의 정치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사·경제사·문화사를 모두 아우르는 통사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과정도 초등학교의 국사 내용이 통사 형태로 구성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별화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 역사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내용 감축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초등학교는 인물사, 중학교는 정치사와 문화사, 고등학교는 사회·경제·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전 체제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열화 방식은 모든 학교급에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포괄함으로써 여전히 동일한 내용이 초·중·고에서 세 차례 반복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초·중·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치사·문화사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지적되었다(김성자 2014: 176).

2015 개정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은 성취 수준과 교과서 내용을 축소하고, 가르칠 내용을 전근대사·근현대사별로 나누어 학교급별로 계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하지

만 실제 예상되는 중학교 역사 수업은 고등학교와 큰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문화 관련 성취 기준들을 삭제 및 다른 성취 기준과 통합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재 교육을 더욱 요원한 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역사교육과정의 계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면서 점점 자세하고 폭넓은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 때 문화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역사교육의 중·고교 학교급의 계열성 확보를 위한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2. 정치사 중심의 역사교육과정

역사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나 조세, 사회와 문화, 과학, 법, 외교 및 국제관계,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왕조 중심의 정치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은 3차 교육과정 이후 일관되어왔다. 물론 정치적 사건의 발생이나 변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정치사를 통해 해당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치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시기 역사 발전의 전체적인 성격과 그 의미를 규정하며, 설명하고자 하는 지점의 역사 단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정치사는 역사 변화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사를 이해하려면 모든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과 학생들이 정치사에 흥미가 없고 어려워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차미희 2007: 207; 허차진 2014: 270; 류호철 2016: 128~129). 많은 학생이 현재 정치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데, 경험할 수 없는 과거의 정치를 배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사를 공부하며 현실에서 잘 쓰이지 않는 행정기구 등의 한자어들은 학생들의 역사 학습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정치사 중심의 역사 학습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이 학습자를 고려한 최선의 교육과정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역사교육에 문화재를 활용하는 것이 많은 유용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사라는 이름으로 역사 전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역사 학계와 교육계에 있다. 역사교육계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계열성의 문제와 더불어 학습량의 문제이다. 학습량 축소를 위해 역사교육과정 개발자들이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체감적으로 역사 내용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느끼기 어렵다. 7차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개발 연구진은 각각 교육 내용의 30%와 20%씩 학습 내용을 감축하라는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는 역사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도리어 학습해야 할 양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김성자 2012: 36~37). 정치사 중심의 통사로 역사를 구성할 때는 학습 내용을 감축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정치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술하였듯이 경제사·사회사·문화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사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은 유일하다. 또한 모든 역사 사건은 단회적이며 특수하다. 정치사의 각 사건은 앞 사건의 결과이자 뒤 사건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내용이 '차마 뺄 수 없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사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놓는다면 '내용 감축'을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의 건국'을 가르친다고 할 때 앞선 사건인 위화도 회군,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조선의 건국은 생략할 수 없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따라서 정치사 중심으로 역사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기존의 학습량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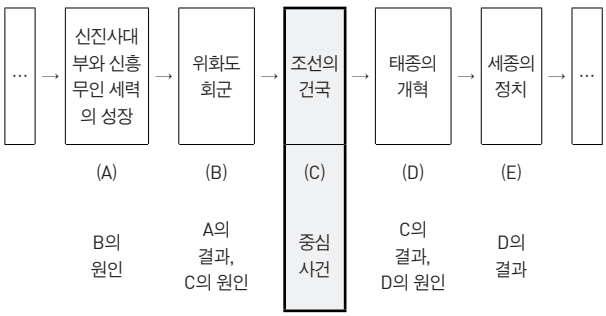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의 건국'의 정치사 내용 구성 예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습량을 축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교과서 페이지를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내용 서술을 함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는 학습해야 할 양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의 학습만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3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립된 정치사 중심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에 대해 재고해볼 시점이 된 것이다.

3.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취약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이 정치사 중심으로 짜이다 보니 현재 중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교육은 대부분 역사부도를 활용하거나 박물관 탐방 또는 수학여행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역사 수업과 연계성이 낮은 편이다. 최근 제작되는 역사부도는 지면 활용도를 높여 다양한 사진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를 포함한 모든 문화재 사진에 대한 축척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 문화재 학습을 통한 역사적 사고력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물관 교육이 주목되기도 하였으나, 지역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박물관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박물관 교육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 등 단회적으로만 실시할 수밖에 없어 문화재 교육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향토사 교육은 학생들이 지역의 문화재를 보고 관찰하며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왔다. 지금까지 학교 향토사 교육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던 것은 고장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이었다. 사찰이나 서원, 고택, 성곽 등이 많이 활용되었다(전영준 2016: 431). 주로 교실 내에서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한 수업이 가능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지며 느낄 수 있는 지역문화재들이 이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정규 수업시간에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

요컨대 교실 내외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정치사 중심의 통사(通史)로 구성되어 있는 역사교육과정과 한정된 역사 수업 시수 하에서는 역사교육에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Ⅳ.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 개발에서 문화재 교육 강화 방안 관련 학생 및 교사 의견조사

문화재를 활용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 개발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역사교육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의 현재의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문화재 교육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1. 의견조사 방법

문화재를 활용한 중학교 역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기준 개발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와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조언 및 교신 저자의 검토를 받아 구조화된 문항을 제작하였다. 설문지 내용 구성은 <표 1>과 같다. 하위 문항이 복수인 '문화재 교육의 의의'와 '문화재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각각 .802, .829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제작된 문항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남·여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12일(월)부터 10월 21일(수)까지 설문지와 웹설문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총 261명 응답). 또 교사 집단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학생과 유사한 문항으로 2020년 10월 11일(일)부터 10월 27일(화)까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총 98명 응답). 교사의 범위는 중등 사회과 교사로 한정하였고,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웹설문지를 이메일과 SNS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문항에 대한 선택 이외에 기타 의견이 있는 경우 서술형으로

표 1 설문지 내용 구성

영역	대상	문항 내용	문항 개수	신뢰도 Cronbach α
상황 분석	학생·교사	역사 과목의 학습량	1	N/A
	학생	현재 역사 과목에 대한 흥미도	1	N/A
	교사	역사 수업에서의 학생 실태	1	N/A
요구와 필요성	학생·교사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바람직한 영역별 비중	1	N/A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의의	5	.802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 강화 방안	6	.829
자유 서술		문화재 교육에 대한 자유 응답	1	N/A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생과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 분석을 포함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설문 대상 응답자의 변인별 결과는 <표 2>와 같다.

학생 응답자수를 보면 응답자 중 여학생의 비율이 54.1%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모두 중학교 3학년 261명(100%)이었으며, 학생 소속은 서울이 58명(22.2%), 경기가 203명(77.8%)이었다. 교사 집단은 여교사가 51명으로 전체 52.0%를 차지하였으며, 남교사는 47명으로 48.0%였다. 교육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23명(23.5%), 5~10년이 23명(23.5%), 11~15년이 22명(22.4%), 16~20년이 21명(21.4%), 20년 이상이 9명(9.2%)으로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공 영역별로는 역사가 60명(61.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사회 26명(26.5%), 지리 8명(8.2%), 공통사회 4명(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인별 의견조사 응답자수 (단위: 명, %)

대상	변인	영역	응답자수
학생	성별	남	120(45.9)
		여	141(54.1)
	학년	중3	261(100)
	소속	서울 S중학교	58(22.2)
		경기 I중학교	96(36.8)
		경기 Y중학교	107(41.0)
교사	성별	남	47(48.0)
		여	51(52.0)
	경력	5년 미만	23(23.5)
		5~10년	23(23.5)
		11~15년	22(22.4)
		16~20년	21(21.4)
		20년 이상	9(9.2)
	전공	역사	60(61.2)
		일반사회	26(26.5)
		지리	8(8.2)
		공통사회	4(4.1)

2. 의견조사 분석 방법

의견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들은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중학교 역사교육의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영역은 단순 기술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후에 집단(중학교 남·여학생, 교사)별 일원변량분석(One-way-ANOVA: F-Value)을 수행하여 제시하였다. 그 다음 사후 검증을 통해 세 집단별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3. 의견조사 결과

1) 현행 중학교 역사교육에 대한 교사·학생의 인식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학습량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그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역사 과목의 학습량이 많다는 질문에 '그러한 편'이 25.6%, '매우 그러한 편'이 27.3%로 나와 긍정 의견이 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교육의 당사자들 중 절반 이상이 대체로 역사 학습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사후 검증 결과 남학생보다는 교사, 여학생 집단에서 좀 더 긍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역사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물었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3 역사 과목 학습량에 대한 학생 집단의 응답 결과

역사 과목의 학습량		응답 결과					총계	차이(F)	Scheffe test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러한 편	매우 그러함			
나는 역사 과목의 학습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교사[a]	2(2.0)	4(4.1)	19(19.4)	38(38.8)	35(35.7)	98(100)	26.34***	b<a,c
	남학생[b]	8(6.7)	27(22.5)	50(41.7)	24(20.0)	11(9.2)	120(100)		
	여학생[c]	5(3.5)	17(12.1)	37(26.2)	30(21.3)	52(36.9)	141(100)		
	전체	15(4.2)	48(13.4)	106(29.5)	92(25.6)	98(27.3)	359(100)		

* p<0.01, ** p<.05, *** p<.001

표 4 역사교육에 대한 학생 집단의 자기 인식 응답 결과

현재 나(중학생)의 상태	응답자수			평균			차이 (t)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나는 역사 과목에 흥미가 없고 역사를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다.	22(18.3)	26(18.4)	48(18.4)	2.45	2.26	2.35	1.56
나는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지만, 역사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45(37.5)	70(49.6)	115(44.1)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고 역사책을 보거나 역사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한다.	31(25.8)	29(20.6)	60(23.0)				
나는 역사에서 왕들이나 제도에 관한 것보다는 흥미 있는 이야기나 문화재에 더욱 관심이 많다.	21(17.5)	14(9.9)	35(13.4)				
나는 역사 관련 진로에 관심이 있으며, 나의 진로를 위해 관련 직업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1(0.8)	2(1.4)	3(1.1)				
총계	26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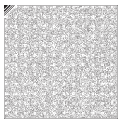
* p<0.01, ** p<.05, *** p<.001

응답한 학생들 261명 중에서 115명(44.1%)이 역사 과목에 흥미가 있지만 역사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0명(23.0%)은 역사에 관심이 많고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책을 보거나 역사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균점을 보면 남학생이 2.45점, 여학생이 2.26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생들은 역사 과목에 관심이 많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역사 과목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 책이나 드라마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의 양을 경감시키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역사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인지하는 역사교육에 임하는 학생의 상태와 관련하여 '한 학급의 학생들을 10으로 보았을 때 각 상태별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가'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 교사들이 인지하는 학생의 상태에 대한 응답 결과

학생의 상태	상대적 비중(비율)								
	1	2	3	4	5	6	7	8	계
역사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질문도 잘 하는 학생	22(22.4)	35(35.7)	32(32.7)	4(4.1)	3(3.1)	1(1.0)		1(1.0)	98(100)
모든 수업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관심을 두고 따라오는 학생		6(6.1)	17(17.3)	24(24.5)	35(35.7)	12(12.2)	4(4.1)		98(100)
역사라면 골치 아파하고 아무 관심도 없는 학생	6(6.1)	27(27.6)	30(30.6)	17(17.3)	7(7.1)	7(7.1)	4(4.1)		98(100)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따라오려는 학생'들이 한 학급에 있는 비중을 5 정도로 인식한 교사들이 35.7%로 가장 많았고, '역사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질문도 잘 하는 학생'을 2 정도로 보는 경우가 35.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역사를 어려워하고 관심도 적은 학생'을 3 정도로 인식하는 교사가 전체 30.6%로 가장 많았다.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학생들과 교사들은 비교적 역사 과목에 대해 긍정적인 관심과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생 다수는 역사 과목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학급당 30% 정도는 역사 수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 모두 역사 과목의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학교 역사 과목의 바람직한 영역 비중에 대한 인식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정치사·경제사·사회사·문화사의 바람직한 비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와 같다.

표 6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바람직한 영역 비중에 대한 응답 결과

영역	집단	응답 결과												평균	차이 (F)	Scheffe test
		0	1	2	3	4	5	6	7	8	9	10	계			
정치사	교사[a]		4 (4.1)	26 (26.5)	37 (37.8)	19 (19.4)	7 (7.1)	2 (2.0)	1 (1.0)	2 (20.)			98 (100)	3.19	3.89**	b<a
	남학생[b]	1 (0.8)	19 (15.8)	38 (31.7)	34 (28.3)	20 (16.7)	5 (4.2)	1 (0.8)		1 (0.8)		1 (0.8)	120 (100)	2.72		
	여학생[c]		11 (7.8)	35 (24.8)	52 (36.9)	28 (19.9)	11 (7.8)	1 (0.7)	2 (1.4)			1 (0.7)	141 (100)	3.08		
	전체	1 (0.3)	34 (9.5)	99 (27.6)	123 (34.3)	67 (18.7)	23 (6.4)	4 (1.1)	3 (0.8)	3 (0.8)		2 (0.6)	359 (100)	2.99		
경제사	교사[a]	1 (1.0)	24 (24.5)	61 (62.2)	11 (11.2)	1 (1.0)							98 (100)	1.87	1.51	N/A
	남학생[b]	2 (1.7)	33 (27.5)	57 (47.5)	20 (16.7)	3 (2.5)	2 (1.7)	1 (0.8)	1 (0.8)			1 (0.8)	120 (100)	2.10		
	여학생[c]	1 (0.7)	36 (25.5)	75 (53.2)	21 (14.9)	2 (1.4)	4 (2.8)	2 (1.4)					141 (100)	2.05		
	전체	4 (1.1)	93 (25.9)	193 (53.8)	52 (14.5)	6 (1.7)	6 (1.7)	3 (0.8)	1 (0.3)			1 (0.3)	359 (100)	2.02		
사회사	교사[a]	1 (1.0)	6 (6.1)	45 (45.9)	43 (43.9)	2 (2.0)			1 (1.0)				98 (100)	2.45	1.20	N/A
	남학생[b]	2 (1.7)	13 (10.8)	45 (37.5)	35 (29.2)	17 (14.2)	6 (5.0)	1 (0.8)			1 (0.8)		120 (100)	2.68		
	여학생[c]		16 (11.3)	55 (39.0)	47 (33.3)	17 (12.1)	5 (3.5)					1 (0.7)	141 (100)	2.62		
	전체	3 (0.8)	35 (9.7)	145 (40.4)	125 (34.8)	36 (10.0)	11 (3.1)	1 (0.3)	1 (0.3)		1 (0.3)	1 (0.3)	359 (100)	2.59		
문화사	교사[a]		9 (9.2)	37 (37.8)	37 (37.8)	11 (11.2)	3 (3.1)		1 (1.0)				98 (100)	2.65	0.10	N/A
	남학생[b]	3 (2.5)	14 (11.7)	45 (37.5)	30 (25.0)	17 (14.2)	6 (5.0)	2 (1.7)	2 (1.7)		1 (0.8)		120 (100)	2.73		
	여학생[c]	2 (1.4)	23 (16.3)	48 (34.0)	33 (23.4)	23 (16.3)	6 (4.3)	6 (4.3)					141 (100)	2.67		
	전체	5 (1.4)	46 (12.8)	130 (36.2)	102 (27.9)	51 (14.2)	15 (4.2)	8 (2.2)	3 (0.8)		1 (0.3)		359 (100)	2.68		

* $p<0.01$, ** $p<.05$, *** $p<.001$

위 의견조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정치사 영역의 평균이 다른 영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교사 집단에서 학생 집단보다 좀 더 정치사를 많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 집단의 평균을 보면 경제사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해 다소 낮아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평균의 차이가 1도 나지 않을 만큼 근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각 집단은 중학교 역사교육은 네 가지를 모두 골고루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중학교 역사에서 정치사의 비중이 큰 편인데, 위 조사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각 영역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교육의 의의에 대한 인식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의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래의 의견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모든 집단에서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를 배우는 것이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세 집단에서 역사 수업을 통해서 문화재의 가치와 성격을 충분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답하였다. 이는 정치사 중심의 많은 학습량과 강의식·암기식 문화재 수업으로 인해 문화재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7 문화재 교육의 의의에 관한 응답 결과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의 의의		응답 결과					총계	차이(F)	Scheffe test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보통	그러한 편	매우 그러함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은 필요하다.	교사a	0(0.0)	2(2.0)	11(11.2)	48(49.0)	37(37.8)	98(100)	15.06 ***	b=c<a
	남학생b	3(2.5)	8(6.7)	36(30.0)	49(40.8)	24(20.0)	120(100)		
	여학생c	2(1.4)	12(8.5)	41(29.1)	66(46.8)	20(14.2)	141(100)		
	전체	5(1.4)	22(6.1)	88(24.5)	163(45.4)	81(22.6)	359(100)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은 중요하다.	교사a	0(0)	1(1.0)	15(15.3)	50(51.0)	32(32.7)	98(100)	15.89 ***	b=c<a
	남학생b	3(2.5)	13(10.8)	41(34.2)	39(32.5)	24(20.0)	120(100)		
	여학생c	3(2.1)	14(9.9)	47(33.3)	58(41.1)	19(13.5)	141(100)		
	전체	6(1.7)	28(7.8)	103(28.7)	147(40.9)	75(20.9)	359(100)		
문화재를 배우는 것은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a	2(2.0)	2(2.0)	15(15.3)	54(55.1)	25(25.5)	98(100)	20.60 ***	c<b<a
	남학생b	2(1.7)	14(11.7)	42(35.0)	41(34.2)	21(17.5)	120(100)		
	여학생c	4(2.8)	27(19.1)	52(36.9)	49(34.8)	9(6.4)	141(100)		
	전체	8(2.2)	43(12.0)	109(30.4)	144(40.1)	55(15.3)	359(100)		
문화재를 배우는 것은 역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a	1(1.0)	1(1.0)	16(16.3)	53(54.1)	27(27.6)	98(100)	13.46 ***	b,c<a
	남학생b	1(0.8)	10(8.3)	45(37.5)	46(38.3)	18(15.0)	120(100)		
	여학생c	4(2.8)	10(7.1)	59(41.8)	48(34.0)	20(14.2)	141(100)		
	전체	6(1.7)	21(5.8)	120(33.4)	147(40.9)	65(18.1)	359(100)		
역사 수업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교사a	3(3.1)	32(32.7)	47(48.0)	11(11.2)	5(5.1)	98(100)	11.76 ***	a<b=c
	남학생b	3(2.5)	13(10.8)	52(43.3)	39(32.5)	13(10.8)	120(100)		
	여학생c	2(1.4)	24(17.0)	60(42.6)	38(27.0)	17(12.1)	141(100)		
	전체	8(2.2)	69(19.2)	159(44.3)	88(24.5)	35(9.7)	359(100)		

* p<.01, ** p<.05, *** p<.001

4) 문화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문화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교사와 학생에게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아래의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문화재 교육 강화를 위해 먼저 교사 집단은 정치사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문화재 내용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업 영역에서는 전체적으로 융합 수업을 통해 문화재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교사 집단은 영상물 개발 및 제공과 직·간접적인 문화재 체험 경험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학생 집단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교사들의 문화재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시사해준다. 평가 영역에서 문화재 관련 수행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생 집단의 선호도가 낮았는데, 이는 수행 평가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8 문화재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에 관한 응답 결과

문화재 교육 강화를 위한 과제		응답 결과					총계	차이(F)	Scheffe test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은 편	보통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정치사 중심의 현행 교육과정을 개선	교사a	2(2.0)	9(9.2)	27(27.6)	35(35.7)	25(25.5)	98(100)	6.75 **	b=c<a
	남학생b	3(2.5)	13(10.8)	63(52.5)	27(22.5)	14(11.7)	120(100)		
	여학생c	5(3.5)	10(7.1)	67(47.5)	46(32.6)	13(9.2)	141(100)		
	전체	10(2.8)	32(8.9)	157(43.7)	108(30.1)	52(14.5)	359(100)		
교과서에 문화재 내용 보강	교사a	4(4.1)	5(5.1)	21(21.4)	45(45.9)	23(23.5)	98(100)	5.96 **	c=b<a
	남학생b	1(0.8)	18(15.0)	39(32.5)	49(40.8)	13(10.8)	120(100)		
	여학생c	4(2.8)	13(9.2)	63(44.7)	46(32.6)	15(10.6)	141(100)		
	전체	9(2.5)	36(10.0)	123(34.3)	140(39.0)	51(14.2)	359(100)		
문화재를 활용한 융합 수업 실시	교사a	1(1.0)	3(3.1)	16(16.3)	54(55.1)	24(24.5)	98(100)	14.35 ***	c=b<a
	남학생b	3(2.5)	13(10.8)	45(37.5)	47(39.2)	12(10.0)	120(100)		
	여학생c	5(3.5)	15(10.6)	61(43.3)	39(27.7)	21(14.9)	141(100)		
	전체	9(2.5)	31(8.6)	122(34.0)	140(39.0)	57(15.9)	359(100)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영상물 개발 및 제공	교사a	4(4.1)	2(2.0)	13(13.3)	42(42.9)	37(37.8)	98(100)	14.95 **	b=c<a
	남학생b	4(3.3)	14(11.7)	45(37.5)	41(34.2)	16(13.3)	120(100)		
	여학생c	7(5.0)	16(11.3)	50(35.5)	45(31.9)	23(16.3)	141(100)		
	전체	15(4.2)	32(8.9)	108(30.1)	128(35.7)	76(21.2)	359(100)		
실물·모형을 활용하여 직·간접적인 문화재 체험 기회 확대	교사a	3(3.1)	4(4.1)	15(15.3)	40(40.8)	36(36.7)	98(100)	9.56 ***	c=b<a
	남학생b	7(5.8)	9(7.5)	34(28.3)	52(43.3)	18(15.0)	120(100)		
	여학생c	9(6.4)	9(6.4)	54(38.3)	43(30.5)	26(18.4)	141(100)		
	전체	19(5.3)	22(6.1)	103(28.7)	135(37.6)	80(22.3)	359(100)		
문화재와 관련한 다양한 수행 평가 실시	교사a	3(3.1)	6(6.1)	17(17.3)	50(51.0)	22(22.4)	98(100)	30.82 ***	c=b<a
	남학생b	21(17.5)	23(19.2)	38(31.7)	26(21.7)	12(10.0)	120(100)		
	여학생c	23(16.3)	39(27.7)	45(31.9)	22(15.6)	12(8.5)	141(100)		
	전체	47(13.1)	68(18.9)	100(27.9)	98(27.3)	46(12.8)	359(100)		

* p<.01, ** p<.05, *** p<.001

5) 역사교육과정에서의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위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역사교육과 정의 성격, 목표, 내용 체계, 실행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 문화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현재 교육과정 문서에는 중학교 과정에서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실 이해'와 '우리나라와 세계가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전통과 유산을 보존·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재나 문화유산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한국사와 세계사 각각의 역사와 상호간의 영향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공감하고 있으며 역사를 배우는 본연의 목적과도 부합하므로 문화재 교육의 필요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격' 부분에 역사 과목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역사 자료'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제시해야 한다. 역사 과목의 역량 중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은 역사 자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 자료란 '읽는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문헌 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 사료가 수업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옛 문체와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교사도 수업 준비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역사 과목의 학습량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흥미는 있으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문화재도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문화재에 대한 학습을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목표' 측면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역사교육의 목표를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두 번째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정치적 흐름을 이해한다'고 되어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역사 과목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바람직한 비중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각 영역을 골고루 배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흐름뿐만 아니라 네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역사 자료', '문화' 등 여러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문화재에 대하여 언급하여 문화재를 활용한 역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마지막 목표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문화와 전통,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부분에서는 상대성을 인정하는 부분만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학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보존·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추가 기술해야 한다.

셋째,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측면에서 먼저 소주제에 문화사와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8개의 대주제와 4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성격과 목표에서 나온 것처럼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관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단원 구성을 비교적 잘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주제가 정치사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사 관련 소주제는 '선사시대의 생활 문화', '발해의 문화' 단 2개에 불과하다. 경제사나 사회사 관련 내용도 미미한 실정이다. 물론 개발된 교과서에는 문화 관련 내용이 삽입되었지만,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 수업을 통해 문화재의 가치와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강의식·암기식 방법이 아닌 다양한 수업 방법으로 학생들이 문화재를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취 기준 영역에서도 문화재 관련 내용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2015 교육과정 문서의 성취 기준 영역은 먼저 대주제명과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하위 항목으로 학습 요소(소주제와 학습 요소를 제시), 성취 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이 전반적으로 정치사에 편향되

어 있다 보니 문화재 교육 관련 내용이 거의 없을뿐더러 하위 항목에서도 문화재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 거의 없다. 정치사 일변도의 소주제와 그에 따른 성취 기준에 대해 재고해보고 문화재 관련 성취 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뛰어났던 고려와 조선의 문화조차 교육과정 문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는 먼저 '사료 학습'의 범주에 문화재를 포함시켜야 한다.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수·학습' 방향을 9개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 7, 8번에 사료 학습 관련 내용이 있다. 8번에 '상반되는 견해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사료 학습'이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사료'의 의미를 문헌 자료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화재도 넓은 범위에서는 사료에 포함된다. 역사 학습을 위한 사료는 1차 사료와 2차 사료로 구분되는데, 문화재 혹은 문화재 모형도 역사 학습을 위한 훌륭한 사료이다. 따라서 사료 학습에 문화재를 포함시키고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문화재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 방향 제시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보존·발전시키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화재 교육을 보다 강조한 교육과정 문서가 제작되어야 한다. 앞서 의견조사에서는 문화재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문화재 관련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 실물이나 모형을 활용하여 문화재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 융합 수업을 하는 것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교육과정 문서에서 문화재 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을 제시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문화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문화재 수업을 시도할 수 있는 관련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실제로 문화재 수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평가 방향'에서는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다양한 평가를 문화재 관련 수행 평가를 통해 실천할 수 있다. 역사교육과정 문서에는 '평가 방향'이 9개로 제시되어 있다. 이 중 두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역사의 기본 사실·개념과 같은 지식 영역, 역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분석·비교·유추 능력 등의 기능 영역, 가치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서적 영역을 균형 있게 측정'하는 것과 세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지식, 기능, 정서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관련 수행 평가는 적합하다. 예를 들어 세종 시기의 문화재에 대해 학습한다면 먼저 지식과 이해 측면에서 그 당시 만들어진 각종 과학기구에 대해 알아보고 또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기능 측면에서 측우기나 해시계 등 당시 만들어진 과학기구들의 용도를 조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가치·태도 측면에서는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우수함을 이해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느끼고 우리나라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선거에 참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치사 중심의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개발에서 문화재 교육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화재 교육이 중학교 역사교육에 어떤 유용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과 의의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역사교육에서 문화재 교육은 문화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해하는 데 유익하며, 더 나아가 문화를 창조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재 교육을 통해 학생 주도형의 수업을 구현할 수 있고, 문화재에 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고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된 문화재 교육과정을 검토하며 역사교육에서 학교급에 맞는 문화재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재 교육이 학생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역사교육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과정에서 문화재 교육은 도외시되어왔다. 역사교육과정이 수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계열성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정치사 중심의 역사교육으로만 일관되는 부분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사 과목의 내용 축소도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왔지만 정치사는 각 내용이 서로 인과관계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역사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분량을 줄이는 것을 지침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중학교에서 문화재 교육을 강조한 역사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역사교육계의 고민거리였던 계열성 확보와 학습량 감축 문제를 개선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수업과 진도 빼기 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재와 수업 교구 및 방법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수업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집단이나 학생 집단에서 정치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꼭 배워야 할 정치사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문화재를 통해 함께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문화재를 활용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역사교육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문화재 교육이 강조된 역사교육과정이 교과서 제작이나 수업 및 평가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의 범위와 종류가 방대하므로 실제 학교 교육에서 어떤 문화재를 선정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적 기준도 연구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역사 내용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네 영역으로 나누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사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분법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통해 과학기술사나 사회문화사 등을 배울 수 있는 역사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 분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화재는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역사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학생들에게 적합한 다채로운 역사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수업 시간에 문화재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역사교육의 근간인 교육과정에서 문화재 관련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2022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문화재 교육 관련 내용이 반영된다면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미래와 가치를 창조하는 역사교육 본연의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안대현(2021)의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문화재를 활용한 중학교 역사교육과정기준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곽병선, 1992,「교과의 논리와 가치에 대한 한 성찰 : 교과 학자와의 대화에서 얻는 교훈」,『교과교육연구 1』, p.11.
- 교육과학기술부, 2009,「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2010,「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24호 [별책 7].
- 교육과학기술부, 2011,「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별책 7].
- 교육부, 1992,「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1호.
- 교육부, 1997,「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별책 7].
- 교육부, 2015,「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 교육부, 2021,「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과정 논의 본격 착수 - 2020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2021.4.20.).
- 교육인적자원부, 2007,「중학교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3].
- 김성자, 2012,「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교육 내용 적정화' 담론의 수용과 굴절」,『역사교육』121호, pp.36~37.
- 김성자, 2014,「역사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내용 구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6.
- 김정희, 2010,「미술 교육에서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논의」,『미술교육연구논총』27권, pp.39~41.
- 김한종, 2015,「교육과정 구성 논리로 본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의 쟁점」,『역사교육연구』23권, p.28.
- 노경민, 2020,「문화유산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 문화유산 교육 현황과 지속 가능한 교육과정 방안 제안」,『교육시설』27-2호, pp.60~68.
- 류호철, 2016,「역사교육 소재로서 문화유산의 가치와 교육적 활용 방향 - 고등학생 대상 문화유산 교육 사례를 통해」,『동아시아고대학』42호, pp.128~129.
- 문화재청, 2000,「초등학교 문화재 교육 지침서 - 문화재 교육의 이론·방법 및 실제」, pp.20~21.
- 문화재청, 2006,「초·중학교 문화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pp.5~10, 181~210.
- 문화재청, 2009,「문화유산 교육 이렇게 해봐요 - 중등 교사를 위한 문화유산 교육 매뉴얼」, p.21.
- 박상혜, 2018,「상상적 접근 질문을 통한 문화재 교육 방안 : 중학교 역사 교과서 문화재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교육문화연구』24권 3호, p.286.
- 방지원, 2006,「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의 계열화 분석」,『호서사학회』298호, p.264.
- 백은진, 2015,「역사 학습의 목적과 역사 교사의 역사교육 목적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역사교육』133호, pp.36~38.
- 신소연, 2012,「역사교육과정의 개정과 계열성 적용의 난맥」,『역사교육』137호, p.115.
- 신유아, 2012,「역사 교과에서 계열성 구현의 난점」,『역사교육』120호, p.108.
- 신유아, 2017,「역사교육과 문화유산의 전승」,『인문학연구』28호, pp.253~254.
- 임금섭, 2011,「고등학교 국사 교과의 생활사 수업 방안」,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9~61.
- 전영준, 2018,「역사적 사고력 伸張을 위한 중등 역사 수업의 문화재 교육」,『역사와 실학』66호, pp.424, 430~431.
- 정선영·김한종·양호환·이영효, 2001,「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pp.147~151.
- 차미희, 2005,「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 교육의 내용 구성」,『한국사학보』19호, p.207.
- 최상훈, 2003,「역사과 독립의 필요성과 내용 조직 방안」,『역사와 담론』225호, pp.217~21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2015 개정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 역사과 교육과정』, 연구 보고 CRC 2015-25-7, pp.5~7, 105.
- 허차진, 2014,「중학교 역사교육의 조선 전기 정치사 학습 방안」,『청람사학』23호, p.270.
- 홍후조, 2016,「알기 쉬운 교육과정 (2판)」, 학지사, pp.173~17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54 No. 3, September 2021, pp.150~167.
Copyright©202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s://doi.org/10.22755/kjchs.2021.54.3.15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History Curriculum Standards for Revit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AHN Daehyun History Teacher, Icheon Yangjung Girls Middle School
HONG Hoojo*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ducu@korea.ac.kr

Abstract

Since the advent of tertiary curriculum, middle school history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political history, but many students perceive history as a simple memorization subject and complain about difficulties in abstract learning. The researcher saw this problem as caused by the history curriculum, and carried out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proposing a revitalization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in the middle school history curriculum.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prior research, the usefulness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such as nurturing creative talent and realizing interactive history classes, was revealed, an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tical history-centered middle school history curriculum were pointed out. Afterwards, as a result of conducting an opinion survey on middle school 3rd grade students and social studies teachers, it was found that first, both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teachers thought that the current political history-centered history had much room for improvement . Second, all groups agreed on the necessity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in history education. However, in reality, it was found that it was not easy to sufficiently educate students about cultural property in a political history-centered curriculum. Third, teachers thought tha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current history curriculum in order to enhance cultural property educ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researcher suggest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2015 revised history curriculum. First, in the 'nature of the subject' section, cultural properties and historical materials should be included, and in the 'objective' sectio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hould be included. Contents related to cultural properties should be added to the sub-themes in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and cultural properties-related contents should be further reinforc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teaching, learning and evaluation'. It was suggested that this section should include cultural property learning and historical material learning, and guidance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cultural property education should be added. If these aspects are reflected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at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cultural property education will be improved, and more lively history education will be provided to students.

Keywords middle school curriculum, history education, cultural property, cultural property education, curriculum standards development

Received 2021. 06. 29. ● **Revised** 2021. 07. 14. ● **Accepted** 2021. 08. 03.

CC BY NC ND

